

# “정부산하기관 282명 낙하산 인사”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박재완 의원 주장 기관장 119명 감사 84명 이사 79명

한나라당은 4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298개 정부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 등 ‘낙하산 인사’가 28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참여정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낙천, 낙선에 대한 위로사로 변모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말까지 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출신이 148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대부분은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출마자, 노무

현 대통령 후보 특보,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및 여당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27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호남출신 45명(33.6%), 영남 32명(23.9%), 서울·경기 27명(20.1%), 충청 16명(11.9%) 등 순이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이 119명으로 가장 많고 감사 84명, 이사 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낙하산 인사의 꽃은 상임감사”라며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건설기관 감사로 임명되거나, 국어교육 전공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사학 전공자가 전기안전공사에, 항공공학 전공자가 한국조폐공사에

각각 감사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상임감사를 선호하는 까닭은 해당 기관의 제2인자로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 보수는 기관장보다 많고 실제로는 ‘할 일 없는 보직’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라며 “업무추진비와 관공비를 제외한 기관장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2천200만원인 반면, 감사는 1억3천100만원으로 기관장보다 높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속 부처별로는 강원랜드 등 산자부 산하기관이 28명의 정치인 출신 임원을 기용, 가장 많았으며 건교부 18명, 과기부 9명, 노동·농림·환경부 각각 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정치인 출신중에 상임감사직 임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기관장 54명 상임이사 20명 등 순으로 집계됐으며, 관료출신은 기관장 73명, 상임이사 51명, 상임감사 24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9년만에 귀향 하인스 워드



귀국 기자회견

# “한국인이란 게 자랑스럽다”

한국계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하인스 워드는 한국 방문 이틀째인 4일 귀국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국인으로 받아준 게 고맙습니다. 자라면서 반이 한국인이라든가

상과하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든가 자랑스롭습니다.”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4일 오전 10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입국 기자회견을 열고 29년만에 한국에 돌아온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회색 정장을 입고 한국 대리인 임상혁 변호사와 미국 측 관계자 김해원씨와 함께 회견장에 나온 워드는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첫 인사를 건넸다.

워드는 “내가 서울 출신이라는

걸 알겠지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 긴장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을 많이 하고 싶다”며 “어머니가 자란 곳을 둘러보고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싶다.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싶다”고 덧붙였다.

워드는 또 “이번 기회에 한국 전통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나는 혼혈이기 때문에 나의 절반은 전통이 여기에 있다”며 “어머니와 약속(Promise to Mother)”으로 이를 불어낸 이번 여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워드는 어머니 김영희씨를 위해 한국에 집을 마련할 것이며 매니저먼트사와 논의해 광복제단과 같은 혼혈아 지원 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드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회견장은 열띤 취재경쟁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진기자들 사이에는 다툼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선물받은 미식 축구볼을 하인스 워드에게 던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워드 각별한 어머니 사랑 청와대 오찬서 구구절절 ‘어머니 예찬’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인 하인스 워드가 4일 낮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 김영희씨를 향한 워드의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워드는 슈퍼볼 MVP로 선정된 이후 “어머니는 나의 인생과 함께 한 사람”이라며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기도 했다.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는 노 대통령의 축하에 워드는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한국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나의 뿌리와 유산을 많이 배우고 싶다”며 방한 목적을 밝혔다.

워드는 “어머니는 항상 내가 부

상당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했고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며 “어머니는 의지 하나로 미국까지 와서 직장을 2~3개씩 다니며 나를 대학까지 뒷바라지했고, 오랜기간 고생을 감내하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워드는 또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게 됐다.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이처럼 영광스런 자리에 내가 있어 주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 덕분”이라며 “오늘의 영광이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한 것임을 힘껏 말했다. 나아가 “어머니는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줬다”며 “어머니는 항상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어머니가 힘닿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방한 중 워드 일정	
6일(14시)	이화여대 동대문병원방문 (워드 태어난 곳)
(18시)	환영리셉션 (주한미대사관)
8일(13시)	혼혈아동과의 만남 (올림픽파크텔)
(16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잠실야구장)
9-10일	제주도 여행
11일(14시)	국립박물관 관람
(17시)	출국기자회견
12일	출국

조심했고 더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머니를 보면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며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고, 그것은 ‘내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어머니가 ‘삶의 동인’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서울 명예시민’ 된다

하인스 워드가 ‘서울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태극홀에서 하인스 워드에게 서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명예시민증은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서울시를 방문하는 국빈이나 시 발전에 기여한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되며, 1958년 미국인 마커스 W 슈바겐에게 처음 수여됐다.

이후 액션스타 성룡(199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요셉 룩블라트(2001년), 요란페르손 스웨덴 총리(2004년) 등이 받았으며, 스포츠계 인사로는 월드컵 4강을 이끈 거스 허딩크 감독(2002년) 등이 받았다.

서울시는 “하인스 워드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로 성장해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주고, 모두의 귀감이 될 남다른 효심을 보여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강금실 前 장관 ‘보랏빛’ 선거

### 오늘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보라·하얀색 상징색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화려하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우리당과 강 전 장관은 정동극장에서 열릴 출마선언식을 강 전 장관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할 기회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당초 정동극장에서 문화 공연 등 이벤트를 펼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문화공연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강 전 장관이 지휘할 시청역에서 내린 뒤 출마선언 장소까지 걸어오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이벤트를 갖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리당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다소 밋밋해질 수 있는 출마선언식을 ‘색깔’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강 전 장관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식 의원은 4일 브리핑을 갖고 “내일 출마선언식에서 보라색과 하얀색을 상징색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당과 강 전 장관이 보라색을 부각시키기로 한 것은 보라색이 품위있는 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씨·시의회사무처장 이호준씨

광주시는 4일 이병록 의회사무처장을 기획관리실장(국가3급) 직무대리로, 이호준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의회사무처장(지방2급)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또 김재복 지차청건설본부장 직무대리를 지차청건설본부장(지방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전주연 전 기획관리실장의 서구청장 출마를 위한 퇴직에 따른 것이다.

신임 이 기획관리실장은 오는 6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등의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 이병록 (49) 기획관리실장 = 성격이 원만하고 경영마인드가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설립 멤버로서 지하철 운영 및 경영에도 정통하다.

▲순천 출생 ▲한양대 법학과 ▲행정자부 방계계획담당관·지방세정담당관·세정과장 ▲한국조세연구원 파견근무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 이호준 (58)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 감성적 성격이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흥 출생 ▲한양대 행정대학원 ▲광주시 기획관 ▲광주 남구 부구청장 ▲광주시 환경녹지국장·상수도사업본부장·자치행정국장·문화정책실장·공무원교육원장.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주거환경 1번지! 투자가치 1번지!**

대형 시장으로  
환경문제 일백! 즉시 입주 가능!

청양 500평에 1억 5천만 원...  
광주에서 가장 실속 있고 확실한 투자 기회! **합병유망!**

49, 37, 35

062) 525-2003

**태양광 주택 보급,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청순 마감

정부 무상보조 신청 접수

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

360-1800, 242-7704